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배 미 랑¹⁾

박 회 현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이 어떠한지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에게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 것들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심리학적 접근으로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설계는 Heidegger(1962)의 실존론적 인간론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여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북한이탈여성 11명을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총 5개의 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 38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희망을 향해 자녀와 몸부림’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다른 교육문화의 부담감’, 세 번째 주제는 ‘역경에 맞서 나가는 삶’, 네 번째 주제는 ‘선택과 도전’이었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사회에서 건강한 부모로서 가족의 안녕과 적응을 증진시키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중재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북한이탈여성, 자녀양육, 질적 연구

* 본 논문은 2017년 2월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일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 부소장 및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E-mail: gpark@hanmail.net)

I. 서론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며 반복된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고 북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직접, 또는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 입국자 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1,000명 이상이 되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그 수가 해마다 2,000명 이상을 초과하였다가 2012년부터 입국자가 다소 감소상태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현재도 매년 1,000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1,827명으로 집계되었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입국비율이 남성을 추월하여 2018년 현재는 72%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8).

탈북과정에서부터 북한이탈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입국비율이 늘어나면서 국내에 입국한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은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출산과 자녀양육을 수행하게 되는데(홍승아, 2013), 탈북 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 남자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기도 하고,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재혼하여 자녀를 낳기도 하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입국시켜서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탈제도적 이주로 인한 신변불안과 적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이윤진, 이정립, 김경미, 2012; 이인숙, 박호란, 박현정, 박영혜, 2010; 장명선, 이해란, 2009).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들이 탈북 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으로 자신의 자녀가 남한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루어 가는 것들을 수 있다. 또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여성들도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자녀와 동반 입국하거나 혹은 자신이 선입국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후차적으로 입국시켜 남한에서 자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을 다시 구성하는 주요한 인물이며, 자녀를 남한사회에서 양육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조영아, 김연희, 2010).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 출신의 자녀나 중국출신의 자녀, 그리고 남한에서 낳은 자녀 등으로 가족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의 적응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제반 문제와 더불어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중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탈북 하여 제3국에 체류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북한이탈여성에게 남한에서의 자녀양육은 하나의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그들의 부모를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자녀양육 방식 등을 습득한 채 남한사회로 이주하였다. 한 사회는 자녀양육의 패턴을

전수하며, 가치와 태도를 전달한다(Erikson, 1968)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양육방식과 교육 경험을 토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이때 남한의 양육 방식 및 교육 환경과의 차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양육되고 교육을 받고 자란 북한이탈여성들의 경험으로는 남한 사회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며(장혜경, 김영란, 2000)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 자녀를 기숙형 대안학교나 시설에 보내기도 한다(김현아, 조영아, 김요완, 2012).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입국이후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한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자녀와 함께 남한사회의 문화를 익히며 헤쳐나가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공통으로 호소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자녀 교육비 부담, 언어의 이질감에 따른 스트레스, 외래어 사용의 어려움, 자녀의 낮은 학업수준으로 인한 어려움, 자신의 부적응에 대한 불안감, 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자녀 친구들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부적응에 따른 불안감, 중국 거주로 입국한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등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홍승아, 2013).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기본 역할로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부모에게 심리적 만족과 기쁨을

주는 가치로운 일이기도 하다.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준비 없이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자녀양육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된다. 즉, 어머니의 자녀양육 준비도에 따라 양육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태도도 달라진다(김경미, 2012).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공감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역의 장과 인력 등의 지원체계이다(최경희, 2001). 하지만 북한이탈여성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혼란과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자녀 발달에 따른 문제들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남한 사람들 속에서 남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출신에 따른 존재의 숨김이 드러나는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로 남한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비자발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결코 편안하지 않은 사회 구조에서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의미를 양적 연구를 통해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여성은 복잡한 가족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인식하는 가족형태의 구조와 각 개인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지닌 사람의 경험의 본질

혹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을 현장에서 더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탐색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는 질적 연구가 보다 더 적합하다(Padgett, 2005).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북한에서의 경험과 중국에서의 경험, 남한에서의 경험을 시공간을 넘나들며 각 개인적인 자녀양육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심층적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였기에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이 Heidegger(1962)의 실존론적 인간론을 철학적 가정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자녀 양육 경험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 연구를 기초로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건강한 부모로서 가족의 안녕과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여성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자녀양육 과정의 현실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보는 현실로 수용하고 해석하여 인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중심의 현상학적 접근으로 본 연구의 질문은 “북한이탈여성에게 남한사회에서의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이며, 이는 심리학적 접근으로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남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19세 미만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여성 11명으로 선정되었다. 표 1에 따르면 참여자의 연령은 20대가 1명, 30대가 4명, 40대가 6명으로 29세에서 46세에 이르렀으며, 남한 거주기간은 최소 5년에서 14년이였다. 현재의 직업으로는 전업주부가 6명, 사무직이나 회원이 3명, 대학생이 1명, 시간제 일을 하는 사람이 1명이었고,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은 4명이며,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8명이고, 대학 졸업은 2명, 고등중학교 졸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학업을 이어간 사람이 1명이였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수가 1명인 참여자가 2명, 2명의 자녀를 둔 참여자가 9명이였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14명, 여자가 6명이었고, 미취학아동이 11명, 초등학생이 5명, 중·고등학생이 4명이였다. 연구 참여자의 남편 출신지는 남한 남성이 4명, 북한 남성이 3명, 중국 남성이 4명이였고, 자녀의 출생지를 보면 남한 출생자는 13명, 북한 출생자는 2명, 중국 출생자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N = 11)

참여자	연령	남한 거주기간	탈북시기	재북직업	재북학력	자녀나이 (성별)	자녀 출생지	남편 출신국	현재직업
1	34	5년	2011. 10.	간호사	고등중졸	6(남) 4(남)	북한 남한	북한	대학생
2	44	14년	1998. 8.	노동자	고등중졸	18(여) 12(남)	남한 남한	중국 (조선족)	사무직
3	46	7년	2009. 2.	농민	고등중졸	9(남) 4(남)	중국 남한	북한	가사 도우미
4	36	13년	1998. 9.	공장	고등중졸	7(남) 6(여)	남한 남한	남한	주부
5	46	7년	2003. 9.	사무직	대졸	10(여)	중국	중국 (한족)	사무직
6	29	6년	2006. 3.	학생	고등중졸	10(남) 3(남)	중국 남한	중국 (조선족)	주부
7	36	7년	1996. 12.	학생	고등중퇴	6(여) 3(남)	남한 남한	남한	주부
8	41	6년	1998. 7.	노동자	고등중졸	16(남) 4(여)	중국 남한	남한	주부
9	40	5년	2011. 11.	교사	대졸	14(남)	북한	북한	회사원
10	38	11년	1998. 11.	학생	고등중졸	10(남) 5(남)	남한 남한	중국 (조선족)	주부
11	40	10년	2004. 2	노동자	고등중졸	16(여) 5(남)	북한 남한	남한	주부

는 5명이었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은 어떤 현상에 대해 더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시점, 즉 내용의 포화시점에 이를 때까지 행하게 된

다. 다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자료는 포화 시점에 다다를 즈음 어떠한 패턴이나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Morse, 1995).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현장노트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태도나 특징적인 행동,

비언어적 의사소통 내용 등을 기록하였다.

질적 연구에서의 면접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대화를 통해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연구자는 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포착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양육경험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며, 양육경험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심도 있게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처음 두 명의 연구 참여자를 통해 사전 예비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나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와 맺게 되는 관계의 복잡성에 대하여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실제 연구를 수행할 때 질문의 적절성이나 면담기술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였고, 면담 장소, 참여자 선정 등의 적절성도 재확인하고 보완하여 준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6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실시한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접 과정에서의 연구 참여자의 권리보장과 신변 정보의 보호, 인터뷰 내용의 보안유지 등의 윤리적 고려를 인터뷰 시작 전에 고지하고 진행하였다. 면담 전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시된 전화 통화를 통해 참여자가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센터나 그들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소요되었다. 2회 이

상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1차 분석 후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면담과 전화 통화를 시행하였다. 첫 면담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면담 내용을 자료화하기 위해서 면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과 연구에 자발적 참여와 탈퇴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마치고 연구 참여 및 녹음 동의에 관한 자필 서명을 받고 시작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일상적 질문이 오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이 풀리고 심층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은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개별적 진술에 따라 후속질문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의 필사는 면담이 끝나고 가능한 바로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신원이나 추적 가능한 정보는 기호로 표기하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면담 내용을 참여자의 언어 표현 그대로(verbatim) 옮겼고, 면담 도중에 작성한 연구자의 메모를 함께 기록하여 면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필사에 소요된 시간은 참여자 목소리의 성량과 명료성, 억양과 사투리의 사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1시간 정도의 면담 분량을 필사하는 데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필사 도중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나 다음 면담에서 보충 질문으로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 경험에 따른 본질적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Heidegger(1962)의 실존론적 인간론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여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연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 후 필사된 전체 자료는 A4용지 352쪽 분량이었다. 먼저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자 또한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 함께 느끼며 거기에 머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체 자료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을 다시 메모하면서 텍스트 분리 작업을 시행하였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에 있어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전체론적 접근과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나 개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접근하였고 또한 세부적으로 문장 단위를 살펴보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등을 인식하면서 면담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다시 부분에서 전체로의 순환 과정을 통해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의 주요 경험들을 코드화하는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코드화된 각각의 분석 단위를 개념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주제가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서 재분류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다섯 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Van Manen(1990)은 체험 연구의 전반적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사이에서 강하고 지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체험에 대해

깊고 풍부한 기술을 할 것과 전체와 부분에 대한 고려로 연구 맥락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의 의도, 생각, 의미에 집중하여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 진술에서 도출된 주제와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와 검토를 통해 전체적인 현상 기술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질 확보를 위하여 Guba와 Lincoln(1981)에 의해 제시되고 Sandelowski(1986)에 의해 질적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제정리된 신빙성, 적용성, 감사 가능성, 확인 가능성의 4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신빙성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기술과 해석을 참여자의 삶의 경험 그대로, 인식한 그대로에서 발견되고 기술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자 연구자는 개념이나 범주 명명시에 가능한 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추상화 단계가 되면서 명명한 것이 그 자료 전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또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따른 신뢰성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 중 1인을 통해 참여자 검증(member check) 과정을 실시하였다. 적용성은 연구의 결과가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먼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탈북 관련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연구결과들에서 편향된 측면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적용성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감사 가능성은 연구자가 수행한 자료 분석과 결과 도출 과정을 다른 연구자가 분명

하게 따라가 볼 수 있을 때 확보된다.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1990)에 의해 제시된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충실히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 시작에서 종료 시점까지 연구과정 전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 가능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objectivity)에 해당 되는 것으로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따른 신뢰성을 위하여 5인의 교수와 질적 연구 논문을 수행한 박사 2인의 피드백을 받아 도출된 주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류해 낸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 그리고 의미가 있는 내용을 찾아 주제로 분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표 2에 제시한대로 5개의 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 38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1. 희망을 향해 자녀와 몸부림

불행의 대물림 단절

중국에 머무는 동안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된 참여자는 자신의 신분이 호적을 갖지 못하여 자녀도 호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고, 자신이 신분을 갖고 자녀에게 호적을 올려주어 자신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남한으

로 가기를 결심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북한에서의 불투명한 미래를 자녀에게 전승할 수 없다며 자신이 신분 때문에 좌절된 삶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게 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자 하루라도 빨리 희망이 없는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남한행을 선택하였다.

나 같은 삶을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며 탈북을 결심함.

“그냥 우리가 딱 선택한 한 가지. 자녀들이었거든요. 내 자식들 위해. 우리는 이대로 살만하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근데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녀 때문에 왔거든요.” (참여자 1)

“아빠 엄마는 딱 수업 끝나면. 교원도 한 달 월급이, 2천원 3천원 요정도. 진짜 쌀 1키로, 2키로도 못 살 정도였으니까 나가서 벌어야죠. 일단 교육 끝나면 바다에 나가. 아빠도 나가고 온 가족이 나가. (아이) 혼자밖에 안 남아있어. …… 그래도 저기(북한)에는 통제 속에 있지만 여기(남한)에는 자본주의니까 저런 그런 통제, 저기(북한)와 같은 통제는 없겠지. 자유롭게는 살 수 있겠지. 그래서 결심한 거지.” (참여자 9)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남한행을 결정함.

“중국에서 살면서 이 한국 오는 길을

표 2. 자녀양육 체험의 주제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희망을 향해 자녀와 몸부림	불행의 대물림 단절	- 나 같은 삶을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며 탈북을 결심함 -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남한행을 결정함
	자녀 적응에 집중	- 친구와 어울리지 못한 자녀로 인한 심적 고통을 느낌 - 자녀의 적응을 위해 집중하는 나의 삶 - 자녀를 위해 내 건강을 살피지 못함
	출신과 언어에서 겪는 소외감	- 나의 삶을 뒤흔드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 남한사회 시작에 대한 두려움 - 언어의 장벽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느낌 -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출신을 숨김
다른 교육 문화의 부담감	교육과 양육방식에서 갈등	-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게 됨 -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 - 학업 내용 이해하지 못함으로 겪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소통 부족과 남편의 양육 불참	- 남한 학부모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함 - 남편이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
	다른 교육환경으로 인한 혼란감	- 남한과 북한의 출산 과정의 차이를 알게 됨 - 남한의 사교육으로 인한 부담감 - 남한의 교육 환경이 다름으로 인한 혼란감
역경에 맞서 나가는 삶	적응과정에서 부대끼며 맞섬	- 자녀의 학업과 교육 문제 고심 -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원함 - 탈북자 부모로 인해 피해 받지 않기를 원함 - 북한사람인 것을 말해야 하는 부담감 - 버림받음에 대한 자녀의 분노 표출 - 남한사람의 북한사람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장함
	자녀를 위해 인식변화	- 맹목삼천지교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함 - 자녀에게 내 삶을 대물리고 싶지 않은 심정 - 내 삶보다 자식을 위한 희망 있는 삶으로 변경함 - 자녀가 북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함
선택과 도전	남한의 양육방식 수용	-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함 - 자녀양육 방식을 남한식으로 생각을 바꿈 -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부족함을 깨달음 - 남한사회의 교육방식으로 지원하고자 부단히 애씀
	국가의 지원확대 희망	- 정부의 자녀 학습지원 혜택이 확대되기를 희망함 - 입국과정에서 어린아이가 겪는 어려움 고려해 주기를 바람
든든한 울타리 역할	본보기 되기	- 가정에서 부모가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한 노력 - 자녀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나의 뒤늦은 배움 - 부모에게 받은 심리적 양육 방식을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적용함
	버팀목 되기	- 당당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한 자신감 을 가짐 - 탈북자 출신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당당히 밝힘

빨리 찾으려고, 그때가 그렇게 없더라구요.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올려고 그랬다가 그 해 그래도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왜냐면 호적도 그렇고 아빠가 나이 있으니까 한해라도 빨리 와야, 젊은 나이에 와야 자리도 잡고 이러잖아요.” (참여자 3)

“애가 호적에 없어. 그러니깐 한국 길을 택했죠. 내가 배부르게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애가 한 살 두 살 크는데 돈을 주고 호적을 살라 해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엄마 쪽으로 해서 애 등록을 못해요.” (참여자 5)

자녀 적응에 집중

남한에 와서 자녀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를 도와줄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경제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남편이 자녀 양육에 대해 비협조적이거나 남편으로서 어느 면에서 조금 소홀하다고 하여도 경제력을 책임지는 역할에서 그들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하였다. 실제로 다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살피지 못하고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다.

친구와 어울리지 못한 자녀로 인한 심적 고통을 느낌.

“애가 비뚤어질까봐 진짜 엄청 고민하고 중학교 가가지고 친구를 못 사귀더라구요. 그게 영향이 있나 봐요. 어렸을 때 엄마와 애착형성이 잘 안 되서, 그래서 그런가,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이걸 애가 못하는 거예요.” (참여자 2)

“처음 학교 가서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해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왕따 당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싫어하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여자 11)

자녀의 적응을 위해 집중하는 나의 삶.

“나는 내 개인적으로 애가 스트레스 안 받게 몸에 좋은 약을 써주고 이러면서 애가 극복하게끔 해줬거든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 반년을 제가 같이 놀아줬죠. 집에 있어줬죠. 애 학교. 나도 학교생활을 많이 모르고 우리 애도 거기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쉬었어요. 그 시간을 쉬어가지고 애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죠.” (참여자 5)

자녀를 위해 내 건강을 살피지 못함.

“요즘에 다리 그 때 다치고 자기 땀에는 일하다가 그냥 순간 빼앗혔다고 생각

했는데, 인대가 다 파열이 되가지고 그날 가서 초음파 다하고. 그때 병원 가서 그 래가지고 지금 몇 일째 계속 다리를 질 질 끌고도 회사를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고맙죠. 아프다고 이 기회에 놀아버릴까 그러면 난 걱정스럽죠. 솔직히 애기를 둘 내 혼자 벌어서 안 되잖아요.” (참여자 2)

출신과 언어에서 겪는 소외감

자녀도, 자신도 탈북과정에서 겪는 공포로 심신이 안정되기도 전에 그들은 자녀를 돌보며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정한 심신 상태가 결국 자녀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서로가 힘든 적응과정을 겪으며, 직장생활에서도 남한사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고 남한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결국 가족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와 상처가 되고 있었다.

북한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은 그들에게 남한에 와서 외래어 사용으로 곤란을 겪거나 자녀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지도를 전혀 할 수 없었고, 북한의 말투나 억양 때문에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 또한 남한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출신에 대해 숨기기 위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나의 삶을 뒤흔드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애기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내 아픈 것 때문에 애기한테 그러냐 생각도 해보고. 애 뱃속에

있을 때 우울증 앓았죠, 애 둘 지나고 우울증 앓았죠. 또 난 이병을 얻으면서, 11개월 됐을 때인가 그때 또 자살 시도 했거든요. 그니까 그것 때문인지 좀 많이 불안해한다던지 그런게.. 그니까 많이 혼을 못 내겠다는 거죠.” (참여자 10)

“처음에는 (자녀) 데려와 가지고 힘들어했죠. 힘들어해요. 괜히 데려왔어요. 정말 힘들어 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작년까지는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아이는 지금도 싫어해요 한국을. 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여자 11)

남한사회 시작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는 정말 그니까 별면 버는 대로 살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많고, 겁도 많고,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죠.” (참여자 9)

“저쪽(북한)의 근성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 피동적으로 항상 움직였잖아요. 지시에 의해서 항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라.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이 여기(남한) 와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참여자 2)

언어의 장벽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느낌.

“특히 외래어 같은 거 쪽 쓰면 북한 사람들은 더 모르잖아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물어볼 데도 없어. 설령 물어봐도 이것도 모르나. 내가 지금 애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좀 그거 아닐까 싶어요.” (참여자 5)

“영어 같은 건 아예 제가 모르니까 그게 진짜. 그거는 우리 아이하고 앉아서 배워주는 건 아예 못하잖아요.” (참여자 6)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출신을 숨김.

“말투 자체부터 해가지고. 말투라던가 그런 거 자체가 벌써부터 그니까 북한에서 왔다 이거를 밝히기를 싫어하거든요. 어떤 때는 모르는 척 강원도에서 살다가 왔다고 하면 아, 그래요? 하고.” (참여자 6)

2. 다른 교육 문화의 부담감

교육과 양육방식에서 갈등

자녀양육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북한이탈여성들은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과 ‘내가 힘들고 여유가 없어 그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하는 자책감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이

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생기는 오해와 갈등이 많았다. 또, 남한의 학업관련 전달문이나 자녀 학교생활의 활동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북한이탈여성 스스로 위축되고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꼈다.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게 됨.

“항상 나를 관찰하죠. 내가 나로 인해서 애한테 왜냐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애는 저기 아니고. 부모가 기본이니까.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애를 보면서 관찰하고. 그니까 애 관찰이 내 관찰이죠. 그래서 자녀 키우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더라구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자녀 키우기예요. 공부? 이걸 아무것도 아니예요. 자녀 키우는 거는 엄마의 잘못된 방식. 엄마의 잘못된 사랑. 엄마의 잘못된 이걸로 인해서 애가.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참여자 1)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

“마음에 아직 여유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봐야죠. 아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랑 받은 만큼 애들한테 줄 수 있게끔. 내가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게끔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일단 내가 안정적이고 편안하지 않으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참여자 4)

학업 내용 이해하지 못함으로 겪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일학년 때 가족통신 신문이 몇 장이, 하루에 몇 장씩 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사인해서 보냈어요. 아 뭘 참가하라 어째라 어째라 하고, 그다음 또 보니까 선생님이 어머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닌데요 이라고 왔어요. 그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참여자 5)

“대한민국 사회, 학교들이 어떤, 어떤 것이 그 동아리 활동도 참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걸스카우트 해야 돼? 의무적인가? 이걸 해서는 뭐가 있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많이 껌껌하고 답답하더라구요.” (참여자 6)

소통 부족과 남편의 양육 불참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어진 역할에 피동적인 태도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이들은 남한에 와서도 중국이나 북한에 두고 온 자녀를 데려와야 하고, 함께 온 자녀는 부모의 적응 시간과 관계없이 곧바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어 삶이 여유롭지가 않다. 그러다보니 주변 사람들이나 자녀의 학부모들과 소통이 어렵고 남한의 교육문화를 익히며 따라가기엔 역부족인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남한과 달리 남편도 자녀 양육에 동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남한 학부모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함.

“소통하고 그런 게 조금 힘든 거죠. 아 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아예 소통하기가 진짜 요즘 힘들죠. 모임 같은 거는 학부모 모임 같은, 지금 현재는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어도 제가 애가 있으니까 데려가기도 좀 그럴 거 같고.” (참여자 6)

남편이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

“아빠는 전혀, 계획을 안 하려고 하죠. 아빠 역시도 한국 남자가 아닌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중국에 조선족들이 여기 한국 토종사람들처럼 그렇게 열렬히 자녀 교육이 없어요. 그냥 다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인데 나는 좀 애기를 하고 아빠가 적극적이면 좋겠는데.” (참여자 2)

다른 교육환경으로 인한 혼란감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출산의 경험이 남한과 다름을 경험하였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또 다른 남한사회의 새로운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북한에서 자녀가 성장하며 상위 학년이 되어도 담임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함께 하는 제도를 더 좋은 것으

로 선호하였고, 이러한 교육문화와 환경이 다른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지도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남한 부모들이 하는 대로 학원에도 보내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토로하며 북한의 학교 교육처럼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사회이기를 소망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출산과정의 차이를 알게 됨.

“북한에서는 농사일 할 철에 애 낳으면 애 봐줄 새도 없어요. 다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남한)처럼 막 그러지는 않아요. 북한은 뭐 산후 조리원 자체가 없어요. 평양에나 있지. 뭐 북한 지방 쪽에는 아예 병원 자체도 겨우 있을까 말까 하니까.” (참여자 6)

남한의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여기는 주변에는 막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뭣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자식만 안보내고 안하면 좀... 학원비는 진짜 쉼터라구요. 학원비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참여자 3)

남한의 교육환경이 다름으로 인한 혼란감.

“우리는 거의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인민학교, 다 이거 의무 무료교육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학교 다니던 그때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남한처럼 돈을 내면서 이렇게는 안 배웠어요. 보내기만 하면 되요. 돌만 딱 지나면 보냈어요. 여기 학교 좀 불편한 게 여기는 학년마다 선생님이 바뀌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안 그래요. 한 선생님이 인민학교, 그 쪽 나가요. 중학교 선생님도 쪽 나가요. 그러면서 그 애들 인지를 너무 잘하거든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쯔 알까 하면 바뀌고. 바뀌고. 이러니까 언제 파악해서, 언제 모습을 제대로 배워줄까. 특히 어렸을 땐 바뀌지 말아야 해요. 왜냐면 애들이 그 좀 적응하는 게 그러잖아요.” (참여자 3)

“학교에서 요구성이, 선생님들 요구성이 없는 거 같아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 소화를 해. 교육을. 사교육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8시, 9시 시간을 넘겨가면서 집에까지 데려다가 재우면서 이렇게 사교육 못지않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날 배운 거, 그날 중으로 통과를 못하면 집을 못가. 무조건 소화시키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집애를 보내지.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무조건 학원가고.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뭐 학원도 없지. 학원비도 없지. 이런 사람들은 또 힘들잖아요. 그게. 진짜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참여자 9)

3. 역경에 맞서 나가는 삶

적응과정에서 부대끼며 맞섬

자녀의 성장에 따른 남한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북한처럼 먹고 사는 기본 생활의 해결이 아닌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업과 관련된 수업태도, 시험, 과제, 학원 보내는 일 등이 중요한 자녀양육 문제가 되는데 남한 사람들과 달리 어느 누구의 인맥도 없고 경제력도 남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수급자 생활이 많은 북한이탈여성에게 자녀가 온전히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이기를 바라지만 그런 이상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좌절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녀들이 북한에서 왔다거나 부모가 북한출신이라는 사실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기에 어떻게든 출신을 애써 감추거나 매년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당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가 발생하면 출신을 거론하며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말들로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학령기나 청소년기를 맞아 자신과 부모, 조부모에 대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 부모와 출신이 다른 자신과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크나큰 부담을 지니며 살고 있다.

자녀의 학업과 교육 문제 고심.

“그냥 매일 숙제를 주고 잘하던 못하던 간에 중간에도 내가 바쁘면 책을 보는 척이라도 하게 가지고 와라 숙제를 검사한다, 이렇게 넘어가게끔 그렇게 그냥 시키고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

냥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참여자 5)

“우리 아이 공부에는 좀 관심을 줘야 되는데 진짜 뭐 말이 쉽지. 애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가서 다하고 끝이야. 근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아, 학원을 그만둘까 차라리 좋은 쪽으로 또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자. 근데 또 학원은 안 그만 두겠다고 계속 말하는 게 그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예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참여자 9)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원함.

“언제쯤이면 실력을 가지고 동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될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북한보다는 좀 여기가 좀 낫지만, 아직도 여기는 좀 그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나라는 아니다. 세상은 아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참 멀었다. 가기까지가.” (참여자 1)

탈북자 부모로 인해 피해 받지 않기를 원함.

“혹시라도 선생님들은 다 알잖아요. 교육청에서 수시로 명단이 오고 공문이 와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따로 전화 오면 저는 정말 신신당부하거든요. 행여나 (북한출신) 엄마 때문에 애기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선생님 제발 부탁드린다고. 아이

는 몰랐으면 좋겠다고. 더구나, 반 아이들은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죠. 우리 애들은 탈북자가 아니잖아요. 엄마 때문에 애기한테 이런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참여자 2)

북한사람인 것을 말해야 하는 부담감.

“북한출신이라는 게 우리 아이를 따라가는 게 싫어서 다른 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 싫은 거지. 북한에서 출생, 출신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런 말 자체가.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좋게 보지는 않겠죠. 뭐 이게 나아져서. 뭐 근데 너 북한에서 왔냐, 물어보는 자체가 싫다는 거지. 그 게 평생 따라다니니까.” (참여자 11)

버림받음에 대한 자녀의 분노 표출.

“애가 한국에 왔는데 그 중국식을 바꾼다고 그걸 막 바꾸는 과정에 애가 나한테 한번은 허리에다 손까지 얹고는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엄마는 나 버리고 갔지 않냐. 왜 버리고 갔냐. 이렇게 애가 따지고 드는 거예요.” (참여자 5)

남한사람의 북한사람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장함.

“남한사람들이 선생님같이 우리 북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남한의 편견을 가지지 말라하는데

북한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북한사람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지만 남한사람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8)

자녀를 위해 인식변화

북한이탈여성들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북한을 떠나면서 결심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감당하겠다고 오로지 자녀가 당당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이든 먼저 시도하고 앞길을 열어주려는 부모의 심정을 드러내며 어미 보다는 분명 더 나은 자녀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맹모삼천지교 심정.

“나는 아이한테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물론 여기도 좋지만 내가 서울로 가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나는 좀 더 큰 곳에 가서 너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는 걸 또 보고. 이런 인재 저런 인재도 많이 보고.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히 서울을 택한 거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밑바탕은 깔아줘 보자.” (참여자 1)

내 삶을 대물리고 싶지 않음.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녀 때문에 왔거든요. 그니까 우

리 밑에 애들 보니까 내 세상에는 이리 살아도 괜찮은데 이제 내 자녀들이, 또 어떤 세대에 어떤 참혹한 세대가 될 지를 누구도 분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니까 내 자녀들까지는 이런 세상이 안 보이는 데서 살게 하고 이런 곳에서는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탈출을 하게 된 동기가 기본 그거거든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왔어요. 북한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 소망은 원래 애가 외교관이 돼서 나중에 북한으로, 아이가 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내 바람이었어요.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참여자 1)

힘든 내 삶보다 자식을 위한 삶으로 바꿈.

“내가 여기에서 뭔가, 북한에서 나올 때 그 마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다보면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최소한 나는 그렇더라도 자식한테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건 만들어줘야지.” (참여자 2)

자녀가 북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함.

“스스로 자기 북한에서 온 친구라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처음엔 나는 싫더라고요. 왜냐면 벌써부터 북한에서 온 친구라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애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까. 내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강박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내 아이는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가 잘 돼서 스스로 분리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기를...” (참여자 1)

“북한에서 왔다하니까, 말투도 그렇고 이러는 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애들이 이런 걸 알구나. 이런 것도 내가 감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대요. 애들도 당당하고 누구한테 우리엄마 나중에 커서 북한 출신, 북한에서 왔다고 그런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라고. 난 너무 당당해.” (참여자 4)

4. 선택과 도전

남한의 양육방식 수용

북한에서는 자녀를 탁아소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부에서 그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을 경험한 그들에게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했다. 그저 잘 먹이고 입히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기에도 바쁜 삶인데 환경과 문화가 다른 이 사회에서 부모교육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녀양육에서 물질만이 아닌 부모가 알지 못하여 자녀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성장기 자녀들은 멈추어 있지 않고 발달해 가는 과정이기에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더 일찍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해 가고 있다.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함.

“항상 받을 때 마다 느끼는 게 부모교육이 참 필요한 부분이다. 엄마들한테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파고 해집고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많이 도움이 되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아, 부모교육 받을만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난 부모교육에서 진짜 많은 걸 듣거든요. 부모교육이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구나. 이것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교육 할 때는 꼭 가요.” (참여자 1)

“지금에서야 생각되는데 아 제대로 된 부모교육. 지금은 사회적으로 되게 이제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 이런 것도 많잖아요. 보고 자라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저희는 그런 거 몰랐죠. 올바른 부모가 어떤 형인지도 몰랐고. …… 올바른 자녀를 키워내려면 정말 부모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들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2)

자녀양육 방식으로 남한식으로 생각을 바꿈.

“일단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인식부터 좀 바꾸면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같이 바뀌지 않을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표현, 애정표현,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하는 것부터 부모가 좀 많이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참여자 5)

자녀 키우면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부족함을 깨달음.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라 품안에 키워줘야 자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작은 애를 세 살에 떨렸으니까. 뭐 엄마 얼굴은 알긴 알아도.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일찍이 버리고 갔는데 뭘 엄마라 하겠어요.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지.” (참여자 3)

“항상 내가. 나도 사실은 불안해요. 내가 그 불안 때문에 애기한테 그 불안함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최소한 피하려고, 최소한 웃으려고 그러고. 최소한 화를 안내려고 그러고.” (참여자 10)

남한사회의 교육방식으로 지원하고자 부단히 애씀.

“경제적인 뒷받침이 엄마, 부모로부터 조금이라도 됐다면, 내 인생이 좀 더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이한테 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이가 하겠다는 건 내 뼈를 깎아서라도 대주자.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돈을 벌어서 하겠다는 길은 무조건 대주자. 근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엄마의 경제력이 조

금만 받침 되었으면... 이런 후회는 안 남게 해주려고 하는 게,” (참여자 1)

“여기는 다 어릴 때부터 크게는 그렇지 뭐 부담이 많이는 안가지만 그래도 다 돈 조금씩 내야 되잖아요. 북에서는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주변에는 막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뭣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자식만 안 보내고 안하면 좀.” (참여자 3)

국가의 지원 확대 희망

북한이탈여성에게 남한의 부모들과 달리 자녀의 교육에서 학습관련 지원이 더 어렵고 힘든 역할이기에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상대적인 경제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삶을 힘들게 한다며 자녀의 학습에 따른 지원 혜택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엄마의 분리로 인한 고충이 컸고, 이제 막 남한사회에 진입하여 자녀는 학교 적응에, 부모는 곧바로 경제활동의 일터로 향하면서 서로의 적응에 따른 어려움이 맞물려 있었다. 이러한 과적된 스트레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과 자녀가 적응하기까지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정부의 자녀 학습 지원 혜택이 확대되기를 희망함.

“내가 봤을 때는 하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치 기준처럼, 책처럼 되가지고 거

기에 맞춰서 부모들도 생활을 하면, 글로는 써져있어서 몸이 안 따라간다 해도 그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그 부모들도 같이 쫓아가는 게,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참여자 5)

“금방 착 와서 적응하기 전까지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어떤 시설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만 나라에서 애들을 보호해 주고 교육하는 거 일일이 알려주고, 고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9)

입국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겪는 어려움 고려해 주기를 바람.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동안 북한 사람들 속에서 6살짜리 애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남자들 속에다가 갖다가 엄마하고 이별시키고. 근데 한국에 와서 까지 또 조사기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떼어 놓는 거예요. 그 국정원이 조사 그것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여자 7)

5. 든든한 울타리 역할

본보기 되기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보살핌도 필요하지만 부모는 거울이라며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꼽았고 그곳엔 부모

가 본보기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며 자라는 것에 대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라든지, 엄마의 정서적 불안심리 상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울까봐 걱정을 하며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자 부모 자신이 먼저 대학에 진학하여 배우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 남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태도, 직장생활에서의 새로운 일을 감당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한 노력.

“애들이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부모가 열심히 잘 살면 애들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잘 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건, 거기(북한)나 여기(남한)나 가정교육이잖아요. 정말 가정교육이 잘된 사람은 나가서도 하는 행동 보면 딱 보여요.” (참여자 1)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걸 애들이 따라 배울까봐, 그것도 걱정이 제일 되요. 애들이 다 커서 어떡할 거냐고. 자기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짜증내고 아들이 따라한다면 어쩔꺼냐고, 그래서 반성하지요. 나를 보면서 애들이 클 거한테 하고.” (참여자 10)

자녀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나의 뒤늦은 배움.

“애기 낳고 있다 보니까 나는 한 2년, 대학 들어가니까 벌써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벌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시야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왔을 때는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우리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허황된, 한 국가면 잘 산다더라. 북한보다 낫다더라. 막연하게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와보니까. 우리 이력서, 이력서 사방 군데 내봤어요. 쓸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놓고 여기다 몇 년 몇 월 몇 일 대한민국 입국 이진 못쓰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이력서라도 좀 채우자. 그래서 대학공부하다보니까. 아. 세상을 정말 내가 노력하는 만큼 여기는 뭔가 결과물이 주어져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2)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공부를 해야 그래야 애들 배워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참여자 6)

부모에게 받은 심리적 양육방식을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적용함.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부모님께) 사랑은 듬뿍 받으면서 살았고 그래서 자신감도 완전... 그니까 애들한테는,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아무리 없고 아무리 못살아도 이렇게 부모, 가정의 사랑이 막 든든하고 그 보호 울타리가 있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애들한테 다른 건 못주더라도 사랑만은 듬뿍 주자. 내가 그걸 배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참여자 1)

버팀목 되기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북한을 떠난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을 선택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당당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파 한다. 비록 시작은 수급권자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지만 스스로 떳떳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자 점차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며 자녀에게 먼저 북한 출신이라고 당당하게 알리고 있었다.

당당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한 자신감을 가짐.

“정말 내가 느낀 게 아, 엄마가 제대로 정말 올바른 부모가 되야지 자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자신감도 있고, 떳떳하게 애가 보란 듯이 당당하게 잘 클 수도 있고 사회생활 할 수도 있겠구나. 과감하게 기초수급자에서 벗어 나와서 자기 계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멋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참여자 2)

탈북자 출신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당당히 밝힘.

“우리 애들은 자기가 탈북민 자녀라는 걸 몰랐죠. 우리 딸이 5학년 말, 6학년 초 그때 사춘기가. 갑자기 애가 순진하고 착하던 애인데, 막 대꾸하고 애가 성격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 이게 사춘기구나. 그래서 내가 니 감정에 호소해 보자. 그때 밝혔어요. 엄마 사실은 이런 사람이다. 너 들어는 봤니? 엄마는 힘들게 너를 거기서 둘러메고 와가지고 어렵게 여기서 대학도 다니고 지금은 남들은 그래도 취직하기 힘들다는데 엄마는 그래도 관공서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잘 살고 있는데... 막 그니까 애가, 우리 애는 평평 울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참여자 2)

“엄마는, 다른 집보다 조금 우리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를 잘해주고 싶은데 돈이 따라 못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준에 맞게 살면 너가 조금 더 크고 이런 집에서도 안되겠다 하면 엄마가 이사를 가.” (참여자 3)

“애가 이제 조금 크고 하니까 텔레비를 보면 엄마도 저렇게 탈북 했어? 엄마도 이렇게 한국 왔어요? 그래 저런 길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내 새끼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오는 길에 죽으면 혼자죽지 너까지 죽게 할 수 없어서

엄마가 (그때는) 혼자 왔다고 당당히 얘기하죠.” (참여자 5)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참여자들은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한 적응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자신을 비롯하여 이후에 남한으로 오는 북한이탈여성들도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자녀들만은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은 어떠한 것들이며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심리학적 접근으로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이 남한행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 속에서도 자녀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안고 탈북과정의 고통과 공포를 감내하며 남한으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탈북이라는 고난을 감행하면서까지 자신이나 자녀에게 더 이상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선택하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으로 나온 북한이탈여성들도 인신매매, 강제소환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외상을 겪으면서 자신의 자유를 위해, 자녀의 신분을 위해 남한으로의

입국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도 남한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극심한 공포를 체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여성들의 국내 유입 이후 그들에게 가정이 형성되고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당면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신체적, 심리적 외상으로 자녀양육에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자신의 우울감으로 자녀에게 적극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심리적 문제를 다룬 조영아(2007), 김현경(2010),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과 김희진(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일치하였고, 홍나미, 이인정, 김고은, 박근혜와 최여희(2010)의 연구에서도 탈북과정의 외상이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외상에 대한 고려와 개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여성뿐만 아니라 김정은(2011)의 연구에서는 남한의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과 자녀의 놀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자녀의 사회 정서능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볼 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신체, 정신 건강문제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을 선택하여 입국하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견어내고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삶의 희망을 향한 도전과 선택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북한에서의 양육된 경험이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양육 문화와

환경의 차이를 느끼며 남한의 교육이나 양육 방식 수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자녀의 학습을 돕고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조영아(2007)의 선행연구에서도 탈북여성들이 자녀가 처한 교육적 상황과 남한의 교육방식 및 양육방식의 수준이나 내용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지극히 부족하고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이부미(2003)의 연구에서도 북한과 다른 남한의 경쟁적 학습문화로 인해 탈북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역할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그래서 자녀가 겪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들을 자신의 잘못된 양육의 문제가 아닌지 스스로 자책하며 불안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의 양육 과정을 떠올려 보며 충분히 잘 성장하고 바른 모습을 갖기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에서 본보기가 되고 가정교육에서 자녀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안고 가족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양육의 본질이라고 정의하였다.

셋째,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인’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불편과 진실을 숨기는 위축감을 감수하면서도 자녀가 받게 되는 차별과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이유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홍나미 등(2010)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탈북자라는 출신 노출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자녀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기게 되는 문제를 다루었다. 북한이탈여성에게 부모가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 밖으

로는 최대한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탈북에 대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며 그들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리하여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들이 남한의 자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도록 부모로서 경제적 지원을 다하고자 남편이 경제적 책임감을 갖고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남한의 자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부모 역할에서 자녀양육에 따른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꾀하여 대학 진학이나 사회에서 학습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있었다.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어머니 역할을 재인식하며 북한에서의 자녀양육 태도와 다른 남한의 양육문화에서 겪는 혼란의 문제에 대해 박현정, 김윤수와 박호란(2011)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섯째,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에서 자녀의 학습 지원에 따른 경제적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고, 남한의 입국과정에서 자녀가 겪는 문제와 적응 과정에서 자녀는 학교 적응에, 부모는 곧바로 경제활동의 일터로 향하면서 서로의 적응에 따른 어려움이 맞물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거론하며 자녀의 적응을 돕는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한 사람들에게도 북한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기를 소망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여성이 부모역할을 지원해 줄 지역사회와 학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박정란(2009)

과 박현정 등(2011)의 연구에서도 강조하였다.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의 부모 역할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경험한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현대 사회의 자녀양육이 부부가 함께 하는 부모의 역할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여성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이 반영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자녀양육의 경험을 보다 더 풍부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서 그들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치료하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중복적으로 겪게 되는 힘든 삶의 과정을 좀 더 심층적으로 돕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둘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사회의 교육 관련 시스템이나 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더구나 출신의 비밀로 인한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관계의 소통이 더 어려운 실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꾸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고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역할 재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여성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중재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1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 적응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은 (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 김현경 (2010). 북한이탈주민 가족 해체와 통합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관계의 고찰.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1), 47-63.
- 김현아, 조영아, 김요완 (2012). 북한이탈주민 가족유형 분석 및 지원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박정란 (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7, 97-135.
- 박현정, 김윤수, 박호란 (2011). 근거이론을 이용한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경험의 변화과정. *아동간호학회지*, 17(1), 48-57.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부미 (2003). 탈북가정 유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현장연구: 탈북 적응교육 훈련원(하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3(2), 115-146.
-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 (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인숙, 박호란, 박현정, 박영혜 (2010).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

- 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아동간호학회지, 16(4), 360-368.
- 장명선, 이애란 (200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재단.
- 장혜경, 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 적응과 여성의 역할.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김희진 (200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연구 -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 13(1), 127-157.
- 조영아 (2007). 남한 내 새터민 여성의 삶. 탈북 여성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자료집 2007(02), 19-24.
- 조영아, 김연희 (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09-527.
- 최경희 (2001). 체험학습과 교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일부. (2018).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whhttp://www.uniedu.go.kr/>에서 2018년 1월 11일 인출
- 홍나미, 이인정, 김고은, 박근혜, 최여희 (2010).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접근. 사회복지연구, 41(1), 307-344.
- 홍승아 (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5(2), 173-20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Macquarrie, J., & Robinson, E.,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 Morse, J. M. (1995). The significance of saturatio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5(2), 147-149.
- Padgett, D. K. (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 유태균(역). 서울: 나남출판. (원본 발간일, 1998)
-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37.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 차원고접수 : 2018. 07. 09.

수정원고접수 : 2018. 11. 18.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9.

Childcar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n Society

Bae, Mi Rang

Park, Hui Hyun

Dept. of Psychology Counseling,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arch for what childcare is from the point of view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nd what this means by generally and deeply understanding how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experience childcare in South Korea, and to explore the essential meaning through a phenomenological method with a psychological approach. This study is based on the existential understanding on human beings of Martin Heidegger who also used the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method of van Manen. The data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eleven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nd a total of five topics, twelve sub-topics, and thirty-eight meaning units. The five topics are 'Struggle with children toward hope', 'Burden of other educational cultures', 'Living out against adversity', 'Choice and challenge', and 'A solid fence role.' On the basis of the study results,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re expected to promote the peace and adaption for their family as the desirable paren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strategy that alleviates the difficulties of rearing children.

Keywords: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childcare, qualitative research